| 산업통상자원부<br>http://www.motie.go.kr | **보 도 참 고 자 료** | 힘내라 대구경북 힘내라 대한민국 |
|---|---|---|

**2020년 3월 28일(토) 조간부터**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3.27(금) 배포즉시 보도 가능)

| | | | |
|---|---|---|---|
| 배포일시 | 2020. 3. 27(금) | 담당부서 | 신남방통상과<br>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<br>구주통상과<br>다자통상협력과 |
| 담당과장 | 배성준 과장(044-203-5710)<br>이승헌 과장(02-2100-1373)<br>송주호 과장(044-203-5660)<br>조수정 과장(044-203-5930) | 담 당 자 | 박수정 사무관(044-203-5712)<br>이수연 사무관(02-2100-1379)<br>이기헌 사무관(044-203-5666)<br>박은솔 사무관(044-203-5932) |

# 기업인 이동 원활화·글로벌 공급망 유지 공조 방안 논의

**-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, 아세안 사무총장, 싱가포르·영국 통상장관 회담 -**

□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3월 26~27일 양일간 **림 족 호이(Lim Jock Hoi) 아세안 사무총장, 찬 춘싱(Chan Chunsing) 싱가포르 통상장관, 리즈 트러스(Liz Truss) 영국 통상장관**과 각각 화상회의를 개최해 **코로나19에 대응한 글로벌 공급망 유지와 기업인 이동 원활화 공조 방안을 논의**하였다.

* 림 족 호이 아세안 사무총장(3.26일 오후 3시), 찬 춘싱 싱가포르 통상장관(3.27일 오전 10시30분), 리즈 트러스 영국 통상장관(3.26일 오후 5시)

○ 이 회의는 **3월 26일 개최된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**에서 각국 정상들이 합의한 **국제 무역 회복 방안***에 대해 **양자·다자적 공조를 강화**하기 위한 차원에서 개최되었다.

* 교역의 원활한 흐름 보장 및 글로벌 공급망 교란 방지, 기업인 이동 편의를 포함한 국경간 이동 보장

□ **(아세안, 싱가포르)** 양측은 코로나19 확산이 전세계 시장에 미치는 **부정적 영향을 최소화**하고 **역내 공급망이 단절되지 않도록**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, **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RCEP)의 연내 서명**을 위해 **화상회의 등을 적극 활용하자고 강조**했다.

○ 특히, 유본부장은 **비즈니스의 연속성을 위해 기업인을 비롯한 필수 인력의 원활한 이동이 필요함**을 역설하며,

- 신뢰할 수 있는 진단·관리 시스템 하에서 **기업인의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**하였다.

○ 이에 **아세안 림 족 호이 사무총장은 아세안 회의에서 필수 인력의 원활한 이동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**하겠다고 밝혔고,

- **싱가포르 찬 춘싱 통상장관도 필수인력의 원활한 이동과 역내 공급망 유지**를 위해 **양자·다자 차원에서 협력**하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였다.

□ **(영국)** 양국은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급망 유지와 기업인 등 **필수 인력의 입국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는데 공감**하고, **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긴밀히 협조**하기로 하였다.

○ 아울러 인공지능(AI), 빅데이터, 바이오헬스 등 미래산업 분야에 대해 공통의 관심사를 갖고 있어 **협력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동의**하면서,

- 지난해 양국이 한·영 자유무역협정(FTA)을 체결하며 협력 기반을 마련한 만큼, 코로나19가 진정된 이후 **해당 분야에 대한 협력을 적극 확대**해 나가자는 데에 공감하였다.

□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G20 정상회의 후속 조치로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**향후에도 양자·다자적 공조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**고 밝혔다.

OPEN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신남방통상과 박수정 사무관(☎ 044-203-5712), 구주통상과 이기헌 사무관(044-203-5666), 다자통상과 박은솔 사무관(044-203-593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